

## 李灌鎔氏의 (唯物批評 根據)의 (前言) 撤回를 要求하는 公開狀 (四)

裴相河

以上은李先生께서該論의 中心을 把握치 못하였으므로 前言에 非임과 가  
튼 誤解를 허고 계시다는 證明이엇섯거니와 다음에는 그『前言』이

A. 矛盾의 羅列이거나,

B. 그러치 안타면 根據업는 獨斷이다. 이에 對한 證明을 세우고 싶다.

A. 矛盾 羅列이 아닐까?

前言에 이러한 句節이 있다.『唯物論 批評의 根據를 여기 掲載하는 動機는  
決코 裴君의 論文을 反駁함에 잇지 아는 것은 讀者 諸位 스스로 깨다르려니  
와 云云』

이 句節을 볼 것 가트면李先生에게는 筆者의 該論을 反駁할 意嚮이 업스  
신 것 갖다. 或 意嚮이야 잇섯든 업섯든 그리고 나의 論文이 反駁 當할 價値  
를 가졌든 안가졌든 이 句節의 表面的 表現으로만은李先生께서는 나의 論  
文을 反駁치 안кет다고 主張하섯슴으로 取할 수밖게 업다. 다시 말하면『唯物  
論 批評의 根據』의『前言』은 決코 裴相河의 論文의 反駁文이 안이라는 結論  
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事實에 잇서서『前言』은 한 개의 反駁文이 아닐  
까? 점잔스리 反駁文이라기보담 根據 업는 人格 侮辱이 아닐까? 그것이 反  
駁文도 안이며 人格侮辱書도 아니라면 그러면『學者의 態度가 이래서는 조  
치 안타는 것을 云云』하는李先生의『前言』은 한 幕의 꿈이 아인가? 한 조  
각 歷史인가? 傳說이나? 神話냐? 그러치도 안타면 적어도 先輩로써의 後輩  
指導의 忠告이나? 好意的 說論이나? 아모리 頭腦가 明皙치 못한들 아모리  
推理에 鈍한 사람인들 아모리 銳敏치 못한 感覺을 가졌든들李先生의 公開  
狀的『前言』이 夢 이야기도 아니고 歷史도 아니고 傳說, 神話도 아닐 썬 아  
니라 더구나 先輩로써의 後背 指導의 忠告, 好意的 說論이 아니엇슴을 그리

고 그것은 單只 한 개의 侮辱的 反駁文, 衒學的 態度에 지나지 안는다는 것이야 斟酌할 수 잇슬 것이다.

簡單하게 말하면 李先生은 『前言』에서 裴相河를 反駁치 안겠다곤 說明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그 『前言』이 둘도 업는 至毒한 反駁文이란 自己撞着에 싸져있다. 그럼으로 『前言』은 矛盾의 羅列이 안일까?

그러나 『前言』은 決코 矛盾의 羅列이 아니라는 事實을 反證키 爲하야 李先生께서는 다음과 가티 辯護하실지도 모르겠다. 卽 『唯物論 批評의 根據를 여기 掲載하는 動機는 決코 裴君의 論文을 反駁함에 잇지 아는것은 云云』의 『反駁치 안는다』함은 『唯物論 批評의 根據』의 本論(卽 前言말고 『唯物論의 分類』 以下의)이 裴相河의 論文을 反駁치 안함을 뜻함이지 決코 『前言』 自體가 裴相河의 論文의 反駁文이 아니다함은 아니다. 換言하면 『前言』은 맞당히 裴相河의 反駁이다. 그러치만은 『唯物論 批評의 根據』의 本論만은 裴相河의 反駁이 아니다. 그럼으로 反駁치 안는다 하면서도 『前言』은 한 개의 反駁文이라는 矛盾은 矛盾이 아니다.

萬若 李先生께서 A를 反證키 爲하야 以上과 가튼 辯論을 主張하신다 해도 이는 그닥 名譽스럽지 못한 辯論라고 하지 안홀 수 업다. 웨 그르냐 하면 設令 『前言』이 한 개의 反駁文이라고 認定할지언정 그것은 ‘B. 根據업는 獨斷’이 되고마는 까닭이다. 무릇 어셔한 反駁文이든지 그것이 한 개의 反駁文으로 成立할려면 反駁의 根據가 잇서야 할 것이며, 反駁이 理由가 잇서야 할 것이다. 무릇 어셔한 批評이든지 그것이 한 개의 批評으로써의 價値를 어드려면 批評의 中心을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개의 反駁文인 『前言』에는 何等의 反駁의 根據도 보이지 안흐며 何等의 批評의 中心도 나타나지 안코 있다. 그럼으로 『前言』이 한 개의 完全한 反駁文, 한 개의 批評다운 批評文이 되려면은 천천히 反駁의 根據와 批評의 中心을 具備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李先生의 學的 態度를 尊敬함으로써 李先生께서는 반드시 該論의 中心을 把握한 反駁文을 다시 發表하실줄 미드며 기다리는 바이다.

『流行思潮』·『大衆的』·『公利的唯物論者』의 末梢的 文句에만 固執함으로써 그 論의 中心을 看過한 反駁이라면, 그는 거듭 李先生의 名譽와 裴相河의 將來를 損傷하는 것이라 할 수맛게 업다.

그리고 筆者는 먼침 말한 바와 가티 아직 唯物論者도 아니며 唯心論者도 아니다. 나로써 唯物論者이다 唯心論者이다 라고 自稱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唯物論과 唯心論에게 疑心이 만다. 그럼으로 該論은 決코 唯物論만에 對한 反駁 - 더구나 皮肉的 誹謗이 아니며, 더욱이 『맑쓰』的 唯物論을 誹謗코저는 꿈에도 意圖치 안헛섯다. 筆者가 『맑쓰』的 唯物論을 誹謗치 안함은 該論

의 『結論』 읽으면 自明할 것이다. 이 點만은 李先生보담 特히 讀者 여러분  
에게 몇 번이나 몇 번이나 高喊치고 싶다.